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에 관심 집중

명예회복심의위 20일 해단식
법 개정 따라 문체부로 이관
법인설치안 정부 반대로 제외
"안정적인 사업 추진위해 필요"

오는 7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10·27법난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벗게 됐다. 그러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조치 등 과거사정리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재단 설립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

난 16일 "6월 만료예정이었던 근거법률의 유효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문체부로 소속이 변경돼 명예회복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20일 사무처에서 해단식을 갖고 1차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시적 유효기간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문체부 중무실로 이관된다. 위원회 운영과 기념관 건립사업 등 실무 운영을 담당할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 새로 구성되며 지원단장은 문체부 중무실 중무1담당관이 맡는다. 지원단은 관계기관 실무자, 전문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법난위원회의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등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종료된다. 다만 추가 피해자 발굴 및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은 계속하며 연구 및 교육, 기념관 및 재단 설립,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10·27법난위원회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난 2008년 출범했다.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스님과 관련자를 강제 연행하고 전국 사찰을 일제 수색, 인권유린과 종교탄압을 자행한 법난 피해 사실 조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법난위원회는 지난 8년 동안 총 251건의 피해 신고를 처리했으며, 의뢰지원금을 신청한 피해자 54명에게 총 7억4965만원을 지급

는 등 피해 조사 및 심의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민간인 및 종교인 희생, 인권탄압 사례를 밝혀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도 했다.

존치기간 삭제로 위원회 활동 기간 제한은 없어졌지만 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조치를 담당할 재단설립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기념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은 정부부처 반대로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당시 위원장 지원스님은 "제주4·3사건법,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 다른 과거사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기념재단 설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일광스님의
사랑하기 좋은 날

동진 씨의 부처님

"저는 기독교를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분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노란 벽 이삭이 고개를 숙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볼 때마다 겸손해져요." 장애인 직업재활반에서 일하는 터벅머리 동진 씨가 큰 눈을 반짝거리며 내게 말한다. 직업재활반은 장애인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는 직업적응훈련반이다. 몇 달 전 인근 식품가공공장에 동진 씨를 처음으로 취업시켰다. 일을 잘해 안심했는데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는 생산량이 떨어져 물량을 제때 맞추지 못해 다시 복지관으로 복귀하게 됐다. 자칫 우울하고 실의에 빠졌을거라 염려되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동진 씨는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다. "이제 막 시작한 사회생활인데 어떻게 첫 술에 잡힐 수 있겠어요? 잘리긴 했지만 좋은 경험을 했고, 열심히 직업기술을 배우서 다른데 취직하면 되지요." 동료들을 향해서도 말했다. "복지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가보면 안다니까."

불과 몇 달 사이 동진 씨는 예전과 달리 우뚝 성장했다. 복지관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와 스스로 대강래 들었다. "무슨 책인지 이야기 해줄래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줄줄 외며 말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위대해요. 그 어떤 책,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을 못 봤어요. 그래서 책을 세 번이나 읽었어요. 그대의 스승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니까? 자이나고 스승은 고행을 하여 악업을 짓지 못하도록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으로 참회하고 선업(善業)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이 너무 좋고 가슴에 와 닿아요. 관장 스님도 읽어볼래요?" 그러고는 책을 쑥 내민다.

스님이나 역시도 경전을 읽으면 이렇게 문장 전체를 똑바로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동진 씨는 서있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환희로움에 빠지게 했다. 나는 오늘 동진 씨가 내린 책을 가지고와 그가 만난 부처님을 조심스럽게 되어 다시 만나고 있다. 복지관은 나에게 53선지식을 찾아 구도(求道)여행을 떠나는 대 화엄(華嚴)의 장이다. 아, 오늘은 팔팔딱 딱 숨 쉬는 어떤 선지식을 만날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거창 죽림정사

"불교문화콘텐츠 활용 전통문화상품 개발 박차"

문화사업단-한국문화재단 협약

앞으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15일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한국문화재단과 '한국전통·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전통·불교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해 국내외 정보를 교류하고, 불교문화상품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불교 문화유산 및 불교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기획·연구하고,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사찰음식 문화, 템플스테이 체험, 불교문화 홍보 등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성효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은 전통·불교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을 더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세계화를 통해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서도식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콘텐츠로 문화상품을 기획, 연구하고, 지속적 정보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발전과 나아가 불교 문화유산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허정철 기자

■ 사유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있나 7면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발전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진언종 대본산 도쿄 평간사 일원에서 거행됐다. 사진은 양국 불교 지도자들이 17일 세계평화위원범회 이후 평간사 대법당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인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며 진행한 기념촬영. 일본 도쿄=홍다경 기자 hong12@bulgyo.com

'인류화합·공생' 韓日공동선언문 채택

日 평간사...37차 한일불교대회
재해·민족분쟁 희생자 명복 기원
양국 청소년 교류사업 지속 '결의'

"한국과 일본의 불교도는 평간사에 결집해 세계평화의 항구적 기원은 물론 대자연의 재해·민족 간 분쟁에 의해 존귀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정령을 추선(追善)한다. 학술대회를 계기로 포교활동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4월 14일 발생한 쿠마모토 오이타현의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고통을 공유하

고, 청소년 교류사업의 실천을 위해 지속 협의할 것을 결의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스님)가 지난 17일 일본 도쿄 진언종 대본산 평간사에서 개최한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양국의 불교발전과 인류의 화합·공생을 기원하며 이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 지도자들은 앞으로의 실천 의제로 인류공영을 위한 생명존중과 청소년 교류사업의 지속 실천 등을 서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은 대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정진에는 다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더 많은 대중이 불법과 소중한 인연을 맺는 것이야말로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한일 양국 불교 지도자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불교신앙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세계평화위원범회, 환영만찬 등 다채로운 교류사업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평화위원범회에 앞서 16일 도지기현 니코시의 동조공과 중요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운양사 순례 시간도 가졌다. ▶관련기사 3면
일본 도쿄=홍다경 기자 hong12@bulgyo.com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명상으로 즐겁고 신나게

사 寺 천년고찰에서
랑 郎 화랑도 기상으로
해 海 바다의 마음 돌아오다

중·고생 대상
혜타스님의 '사랑해' 명상상담캠프

2016년 8월 12일(금) ~ 8월 14일(일) 2박3일

● 주요 프로그램

- '명상이란 무엇인가' 워밍업 체험으로 하는 명상과 놀이 I II
- '우주와 나의 만남' 만다라 명상
- '내 마음 속 나무' 사유의 시간
- '내 고민을 들어봐' · '명상의 실제'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5만원
- www.baekyangsa.or.kr 참조
- 백양사 (061)392-0100
- 백양사·용인 장경사·(사)도련